

# 일본 아마와 관광:

## ‘전통적’ 잠수복인 이소기의 상징성\*

유철인\*\*

### || 目次 ||

1. 머리말
2. 이소기의 등장과 아마의 이미지
3. 잠수작업과 관광
4. 맺음말

## 1. 머리말

일본의 아마(海女)는 제주해녀처럼 산소공급장치 없이 무호흡으로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여성이다.<sup>1)</sup> 한국의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채취 작업을 나잠어업(裸潛漁業)이라고 한다.<sup>2)</sup> 나잠어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주도를 비롯한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7-A00120).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문화인류학 전공

- 1) 일본에서는 남성 무호흡 잠수어업자를 한자로 ‘海士’라고 쓰고, 여성 무호흡 잠수어업자인 ‘海女’와 마찬가지로 ‘海士’를 아마라고 읽는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인 아마(海女)에 한정하여 ‘아마’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한국의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1항은 신고어업의 하나인 나잠어업(裸潛漁業)을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마 중에서 잠수작업을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아마를 민속학자인 미야모토 쓰네이치(宮本常一)는 ‘관광아마(観光海女)’라고 부르면서, 사람의 일하는 모습이 관광대상이 되는 것은 그 직업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고 우려하였다.<sup>3)</sup>

관광아마는 시마반도(志摩半島)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sup>4)</sup> 1920년대 말에 아마는 시마관광의 핵심테마로 부각되어, 수많은 그림엽서에 시마의 아마가 등장하였다.<sup>5)</sup> 이때부터 태평양전쟁 이전까지 시마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아마가 잠수하는 작업을 보는 관광상품이 있었다. 1927년에 철도성이 만든 『오사카에서 12박 명승안내도(大阪から一二泊 名勝案内図)』라는 관광팸플릿과 1929년에 오사카 철도국이 만든 『이세신궁 참배 안내(參宮案内)』라는 팸플릿은 유람선을 타고 스가시마(菅島)와 도시지마(答志島)의 해안에서 작업하는 아마를 보는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해산물의 채취기가 정해져 있고 아마의 작업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실제로 아마의 잠수작업을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유람선이 전속 아마를 고용하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에, 전속 아마가 유람선에서 바다로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형태로 아마의 실연(実演)이 행해졌다고 한다. 1939년 6월 25일자 『이세신문(伊勢新聞)』을 보면, 아마의 실연 중 관

---

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宮本常一, 『海人ものがたり』, 中村由信写真集, 『海女』, マリン企画, 1978, p.155. (小暮修三, 『海女の表象-『ナショナル ジオグラフィック』に見るオリエンタリズムと観光海女の相互関係』, 『日本研究』 39,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09, p.132에서 재인용)
- 4) 小暮修三, 上掲書, p.132.
- 5) 바다박물관(海の博物館) 편, 『눈으로 보는 도바·시마의 아마』, 한국어판 개정, 바다박물관, 2011, p.8.
- 6) 塚本 明, 『都びとのあこがれ-歴史に見る志摩の「観光海女」-』, 『三重大史学』, 三重大学人文学部, 第12号, 2012, p.28.

광객이 바다 속으로 동전을 던지면 아마가 그것을 주워 가지는 일까지 벌어졌다.<sup>7)</sup>

미에현(三重県) 도바시(鳥羽市)의 미키모토 진주섬(ミキト真珠島)에서 잠수작업을 보여주는 아마가 현재 대표적인 관광아마라 하겠다. 미키모토 진주섬은 1951년에 개장하면서부터 아마가 잠수작업을 하는 모습을 일반 방문객에게 매일 보여주고 있다. 미키모토 진주섬은 1893년에 미키모토 고키치(御木本幸吉)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주양식에 성공한 섬이다. 처음에 진주를 양식할 때에는 아마가 바다 속의 진주조개를 관리하였기에 아마는 진주양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러나 1920년대쯤부터 양식기술의 발달로 아마의 잠수작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sup>8)</sup>

그렇지만 미키모토 진주섬에서는 관광아마들이 흰색의 ‘이소기(磯着)’를 입고 잠수하는 것을 ‘아마의 실연(海女の実演)’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소기는 상의(上衣)인 ‘이소샤츠’와 하반신을 두르는 치마인 ‘이소나카네’를 통칭하는 말이다. 현재 아마들은 잠수작업을 할 때 고무잠수복을 입는다. 그러나 시마의 아마들이 전복을 채취하여 신에게 바치는 마쓰리에 참가하여 잠수작업을 할 때에는 고무잠수복 위에 흰색의 이소기를 덧입는다.

2009년 25년 만에 새로 아마가 생겨난 이와테현(岩手県) 구지시(久慈市) 고소테(小袖)에서는 2010년부터 아마가 성계를 채취하는 모습을 ‘스모구리 실연(素潜り実演)’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였다.<sup>9)</sup> 스모구리는 산소공급장치 없이 무호흡으로 잠수하는 것을 말한다. 성계를 채취하는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때 고소

7) 上掲書, p.29: 額田年, 『海女-その生活とからだ』, 鏡浦書房, 1961, p.59.

8) 塚本 明, 『都びとのあこがれ-歴史に見る志摩の「観光海女」-』, 前掲書, p.21.

9) 久慈市, 『北限の海女 素潜り実演がスタート!』, 2010年 6月 29日 最終更新, <http://www.city.kuji.iwate.jp/cb/hpc/Article-87-19082.html>, 2010년 9월 12일 검색.

데의 아마들은 1960년 전후의 이소기 차림을 하고 잠수작업을 한다.

아마들은 오랫동안 상반신은 나체로 잠수작업을 하였다. 아마들이 언제부터 상하의(上下衣) 한 벌인 이소기를 입었는지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시마의 아마들은 1920년대에 일본 내에서 가장 빨리 이소기를 입었다. 그 후 1960년대부터 시마를 비롯한 일본 전역의 아마들이 고무잠수복을 입기 시작하였다.<sup>10)</sup>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잠수복의 변화 속에서 미키모토 진주섬의 아마의 실연과 고소데의 스모구리 실연에서 아마가 이소기를 입는 것의 상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소기의 등장과 아마의 이미지

### 1) 이소기: ‘전통적’인 잠수복

아마의 이소기는 어떻게 잠수복이 되었을까. 아마의 오래된 전통은 이소기를 입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은 나체로 잠수하는 것이다. 상의를 입지 않고 잠수를 하는 것은 옷이 물기를 머금어 저항이 세지는 것을 막고, 가볍고 기민한 동작을 하기 쉽기 때문이었다.<sup>11)</sup> 아마의 잠수어업을 ‘나잠수어(裸潜水漁)’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sup>12)</sup> 한국에서 해녀의 잠수어업을 나잠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용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마가 상의를 입게 된 것은 보온효과와 찰과상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늘어 [아마의] 나체 노출이 흥미 위주로 비쳐지는

10) 田辺 悟, 『海女』, ものと人間の文化史 73, 法政大学出版局, 1993, p.235: 日本ウエットスーツ工業会, 『ウエットスーツの変遷の年表』,

<http://www.jwma.gr.jp/rekishi/rekishi.htm>, 2012년 3월 10일 검색.

11) 小暮修三, 『海女の表象』, 前掲書, p.132.

12) 田辺 悟, 前掲書, p.230.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한다.<sup>13)</sup> 한 예로 관광객이 찾아오기 전 아마가 상반신은 나체로 잠수하던 노토반도(能登半島)의 해구라지마(舢倉島)에서도 1960년경부터 여름에는 본토를 연결하는 정기선의 운항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자 아마들이 나체를 숨겨야만 했다고 한다.<sup>14)</sup> 일찍부터 관광지가 된 곳일수록 아마의 상반신 의복착용이 빠른 경향을 보였다.

미키모토 진주섬은 1951년에 개장하였지만, 그 이전에도 미키모토 진주양식장에서는 유명인사가 방문하는 특별한 경우에 아마들의 작업을 보여주었다. 1911년 5월 23일자 『이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메이지천황의 황후가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참배한 후 일본 최초로 해수욕장으로 개장한 후타미(二見)를 방문했을 때, 진주양식장의 아마들은 흰색 속옷 상의(褌衣)와 흰색 잠방이(股引)를 입고 흰색의 속치마(湯巻)를 두르고 진주조개를 채취하는 작업을 보여주었다고 한다.<sup>15)</sup> 이를 위해 미키모토 고키치는 며칠 전부터 아마고야(海女小屋)를 세우고,<sup>16)</sup>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연령의 숙련된 아마 40여 명을 선발하였다. 행사 당일에는 5척의 진주채취 배에 나눠 타고, 미리 바다에 뿌려놓은 진주조개를 채취해서 황후에게 진주를 바쳤다고 한다.

이 시기에 시마반도의 아마들은 반나체로 잠수하는 것이 일반적이

13) 千葉県教育委員会, 『房総の漁撈習俗調査報告 房総の海女・海士』, 『日本の漁村・漁撈習俗調査報告書集成(第三卷) 関東地方の漁村・漁撈習俗(1)』, 東洋書林, 2003, p.30. (小暮修三, 「海女の表象」, 前掲書, p.132에서 재인용)

14) 北国新聞社編集部 編, 『能登 舢倉の海びと』, 北国出版社, 1986, p.154. (小暮修三, 「海女の表象」, 前掲書, p.132에서 재인용)

15) 塚本 明, 「都びとのあこがれ-歴史に見る志摩の「観光海女」-」, 前掲書, p.21.

16) 해안가에 세워 둔 아마고야는 아마들이 잠수작업을 할 때 몸을 데우기 위해 불을 켜고 휴식하는 곳이다.

다. 황후가 아마의 진주채취 작업을 본 것에 대한 『오사카 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의 기사를 보면, 진주양식장의 아마들이 평소에는 하얀 반소매 샤츠(襦袢)와 속치마인 고시마키(腰巻)를 입고 잠수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흰색 잠방이(猿股)를 더 입었다고 한다.<sup>17)</sup> 따라서 마을어장에서 생업으로 잠수할 때 아마들은 반나체로 작업했지만, 미키모토 진주양식장에서 일하는 아마들은 일찍부터 이소기를 입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2개 신문이 묘사한 잠수복의 각 부분에 대한 명칭은 조금씩 서로 다르다.

1911년 미키모토 진주양식장의 아마들이 이소기를 입고 잠수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 미키모토 고키치가 이소기를 처음으로 고안했을까. 영국의 인류학자인 마르티네즈(Dolores P. Martinez)는 미키모토 진주섬에 전시된 사진의 설명에 그렇다고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고 주장한다.<sup>18)</sup> 설명문을 보면, 아마들이 상반신은 벗은 채 잠수작업을 하고 난 후 입는 아마기(海女着: 여기에서는 하반신을 두르는 치마인 고시마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를 응용해서 미키모토 고키치가 진주양식장의 아마들이 입는 얇은 하얀 치마와 블라우스를 만들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잠수작업을 보여줄 때 외국인 방문객들이 상반신은 벗은 채 속옷 하의 하나만 걸치고 잠수하는 아마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sup>19)</sup>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 방문객은 미키모토 진주섬이 개장하기 이전에 미키모토 진주양식장을 방문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1910년대부터 일본 각지에서 활발하게 열렸던 박람회에서도 아마의 잠수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쓰카모토 아키라(塚本 明)

17) 塚本 明, 「都びとのあこがれ-歴史に見る志摩の「観光海女」」, 前掲書, p.21.

18) Martinez, Dolores P., *Identity and Ritual in a Japanese Diving Villag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p.148.

19) *ibid.* p.148.

가 정리한 것을 보면, 1916년 도쿄 우에노공원에서 열린 「해사수산물박람회(海事水産博覧会)」에서 「해저관(海底館)」을 설치하여 아마가 전복을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시초이다.<sup>20)</sup> 1957년까지 40년간 「아마관(海女館)」이나 「아마실연관(海女実演館)」을 운영한 박람회가 32개나 되는데, 주로 시마의 아마들이 진주를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람회에서 잠수작업을 보여주는 아마들은 1911년 미키모토 진주양식장에서 잠수작업을 보여준 아마와 거의 같은 작업복을 입었다.<sup>21)</sup> 미키모토 진주양식장이나 각종 박람회에서 아마들이 진주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양식진주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마의 아마들이 상의를 입게 된 또 다른 배경으로 이들이 한반도에 가서 잠수작업을 한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1880년대 말부터 1920년대 말까지 한반도에 가서 잠수작업을 하였다.<sup>22)</sup> 도바시 도시지마 도시(答志)어업조합의 사업보고 문서에 따르면, 1908년부터 1910년까지 도시지마의 아마들은 부산과 원산에 가서 잠수작업을 하였다.<sup>23)</sup> 이 시기는 제주해녀들도 그곳에 가서 ‘물질’을 하던 때인데,<sup>24)</sup> 당시 제주해녀들은 ‘물소중이’라는 해녀복을 입고 있었다.

소중이는 본래 제주도 여성의 속옷 하의를 가리키는데, 고무잠수복을 입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이전에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입었던 소중이를 물소중이라 불렀다. 물소중이는 어깨 끈이 한쪽만 달린

20) 塚本 明, 「都びとのあこがれ-歴史に見る志摩の「観光海女」-, 前掲書, p.23.

21) 上掲書, p.25.

22) 梶田一二, 「済州島海女」, 『地域社会の発展とまちづくり』, シード・ブランニング, 1986, p.82.

23) 塚本 明, 「近代の志摩海女の出稼ぎについて」, 『三重大史学』第10号, 三重大学人文学部, 2010, p.54; 橋本好史, 「答志海女たちの朝鮮行きについて」, 未発表資料, 2009.

24) 산소공급장치 없이 무호흡으로 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제주도에서는 ‘물질’이라고 부른다.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과 비슷한데, 속옷으로 입는 소중이보다 허리가 길게 연장되어 가슴을 가리게 되어 있다. 1703년에 펴낸 이형상 목사(牧使)의 『탐라순력도』에는 잠녀(潛女)가 물소중이를 입고 물질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sup>25)</sup>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에는 물질하는 여자를 잠녀라고 기록하였다. 이형상의 『병와연보』에는 “잠녀들에게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잠수(潛水)작업복인 특이한 양식의 작업복을 공이 스스로 고안하여 작업시에는 해변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착용하도록 관의 명령으로 강력히 권장하였다”는 율긴이의 추가해설이 있다.<sup>26)</sup>

미야모토 쓰네이치는 시마의 아마들이 1910년대 전후에 한반도 연안에서 잠수작업을 할 때 제주해녀들과 접촉하면서 작업복을 입는 것을 배웠다고 하였다.<sup>27)</sup> 그러나 한반도 연안에서 잠수작업을 하고 돌아온 아마들만 작업복을 입었으며, 대부분의 아마는 그 당시 작업복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그 당시 한반도에서 잠수작업을 했던 시마 아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곳에서 만났던 제주해녀들은 머리수건까지 쓰고 있었다고 한다.<sup>28)</sup>

쓰카모토 아키라도 시마반도에서 아마가 흰색의 이소기를 입게 된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다른 주장이 있다면서 각주에 미야모토 쓰네이치의 주장을 소개하였다.<sup>29)</sup> 그러면서 미야모토의 주장은 확실한 이야

25) 이형상, 『耽羅巡歷圖』, 김남길 그림, 영인본, 제주시, 1994, p.95.

26) 이형상, 『瓶窩年譜』, 청권사, 영인본, 1979, pp.229~231. (고부자,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복식,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p.330에서 재인용)

27) 宮本常一, 「海人ものがたり」, 前掲書, pp.138~140.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탐라문화』 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p.71에서 재인용)

28) Plath, David W., “Lessons from the Ama,” Study Guide: Fit Surroundings, Richmond: Media Production Group, Institute for Education on Japan, Earlham College, 1993, p.7.

29) 塚本 明, 「都びとのあこがれ-歴史に見る志摩の「観光海女」-」, 前掲書, p.22.



기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마르티네즈와 쓰카모토의 주장처럼 미키모토가 이소기를 처음으로 고안했는지, 아니면 미야모토의 주장처럼 1910년대 전후에 한반도 연안에서 잠수작업을 했던 시마의 아마들이 제주해녀들과 접촉하면서 이소기 형태의 작업복을 입는 것을 배웠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1910년대에 미키모토 진주양식장의 아마들은 잠수작업을 보여줄 때 이소기를 입었으며, 1920년대쯤에는 시마의 아마들도 마을어장에서 생업으로 잠수작업을 할 때 이소기를 입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다나베 사토루(田辺 悟)는 1920년대 말까지 시마의 아마들이 이소나카네만 입고 상반신은 나체로 잠수를 했다고 추정하였고,<sup>30)</sup> 1926년까지 상반신은 나체로 잠수를 했다고 기록한 자료도 있다.<sup>31)</sup> 영국인 고든-스미스가 1904년 도시지마의 아마를 찍은 사진을 보면, 그때까지 그곳의 아마들은 상의를 입지 않았다.<sup>32)</sup> 『오사카 아사히신문 미에판(大阪朝日新聞三重版)』(1933년 9월 20일)의 아래의 기사를 보면, 적어도 1933년 이전에는 아마들이 상의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금년도 경제갱생 마을로 지정된 아마의 본고장인 시마군(志摩郡) 고시카촌(越賀村)에서는 생활개선으로 갱생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아마와 일반부인의 복장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하여 얼마 전 현(県)에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아마는 셔츠(シャツ)와 고시마키(腰巻: 여기에 서는 이소나카네를 가리킴)만 두르고 잠수를 하여 미풍양속에 거슬리므로, 사루마타(サル股) 위에 반바지(パンツ)를 입고, 상의는 여학생들이 걸치고

---

注 (20).

30) 田辺 悟, 前掲書, p.234.

31) 東海農政局三重統計情報事務所伊勢出張所 編, 『鳥羽志摩地方の海女物語』, 三重県農林水産統計協会, 2003, p.11.

32) Gordon-Smith, Richard, *The Japan Diaries of Richard Gordon Smith*, Victoria Manthorpe ed., reissued editi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86. (『ゴードン・스미스의ニッポン仰天日記』, 小学館, 1993)

있는 것 같은 샤츠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sup>33)</sup>

잠수복의 각 부분에 대한 명칭은 다소 다르나, 1933년 고시카에서 권장한 아마의 잠수복은 1911년 황후가 방문했을 때 진주양식장의 아마가 입은 잠수복과 전체적인 모습은 비슷하다. 그러나 새롭게 권장된 아마 작업복의 샤츠와 이전에 아마들이 입었던 샤츠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알 수가 없다. 위의 기사에 대해 이와타 준이치(岩田準一)는 이러한 새로운 아마의 작업복이 널리 보급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소나카네 차림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34)</sup> 그러나 미키모토 진주섬의 관광아마의 옷차림을 보면, 아마들은 그 후에도 계속 속치마 형태의 이소나카네를 짧은 반바지 형태의 하의 위에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8월에 인터뷰한 도시지마의 아마도 고무잠수복을 입기 전의 작업복에 대해 바지를 ‘고시마키(腰巻)’, 상의는 ‘시로이(白い) 샤츠’, 몸에 두르는 것을 ‘나카네’라고 불렀으며, 작업복 전체를 통틀어서 ‘이소기’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였다.

1960년대부터 아마들이 고무잠수복을 입게 되면서 이소기는 ‘전통적’인 잠수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복을 잡아 신에게 봉납하는 마쓰리에서는 아마들이 흰색의 이소기를 입고 잠수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바시 스가시마에서 매년 7월 11일에 개최되는 시론고 마쓰리(しろんご祭り)와 도바시 구자키(国崎)에서 매년 7월 1일에 열리는 미카즈키 신지(御潜神事)에서 아마들은 흰색의 이소기를 입고 전복을 채취한다.

미카즈키 신지는 음력 6월 1일에 구자키를 포함한 인근 7개 마을의 아마들이 구자키의 미카즈키 해변의 앞바다에서 이세신궁에 봉납할 전복을 채취하던 행사이다. 1871년 11월에 진상제도의 폐지로 노시아

33) 岩田準一, 『志摩の海女』, 復刻, 鳥羽志摩文化研究会, 1971(1939), p.18.

34) 上掲書, p.18.

와비(熨斗あわび: 늘려서 말린 전복)를 봉납하는 것만 남기고 미카즈키 신지는 중단되었다가, 2003년 132년 만에 부활되어 양력으로 7월 1일에 개최되고 있다.<sup>35)</sup> 미카즈키 신지는 1871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 이전의 행사에서 아마들은 이소기 차림이 아니고 상반신은 나체로 잠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자키 정내회와 노시아와비 보존회가 만든 마을관광 팸플릿에서는 노시아와비의 전통과 함께 미카즈키 신지를 “흰색의 이소기를 입은 아마들이 전복을 채취하러 바다에 잠수한다”고 소개하고 있다.<sup>36)</sup>

시론고 마쓰리는 평소에는 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시론고 해변에서 스가시마의 아마들이 바다에 일제히 들어가 전복을 채취한 후, 처음에 잡은 암수 전복 1쌍을 시라히게신사(白髭神社)에 바치는 행사이다.<sup>37)</sup> 1939년에 처음 출판된 이와타 준이치의 『시마의 아마』에서도 섬의 수호신인 시로노고상(シロノゴさん)에 전복을 바치는 것을 아마의 신지(神事)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sup>38)</sup> 시론고 마쓰리의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마쓰리 때 아마의 복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책이 1939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1960년대부터 시마의 아마들이 고무잠수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와타가 본 시론고 마쓰리 때에는 아마가 이소기 차림으로 잠수를 하였다.

2010년 7월 1일 미카즈키 신지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마들은 고무잠수복 위에 흰색의 이소기를 겹쳐 입고, 고무잠수복 모자 위에 흰색의 머리수건을 쓰고 있었다(〈사진 1〉 참조). 하의만 고무잠수복을 입고 이소샤츠와 이소나카네를 그 위에 입은 아마도 보였다. 또한 2002

35) 바다박물관 편, 『눈으로 보는 도바·시마의 아마』, p.57.

36) 国崎町内会・熨斗あわび保存会, 『倭姫命を訪ねて 国崎へ』,パンフレット資料.

37) 바다박물관 편, 『눈으로 보는 도바·시마의 아마』, p.54: 좌혜경 외, 『제주 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p.320: 田辺 悟, 前掲書, p.120.

38) 岩田準一, 前掲書, p. 18.

년 7월 11일 시론고 마쓰리에 참가한 스가시마 아마들도 고무잠수복 위에 흰색의 이소기를 겹쳐 입었다. 마쓰리가 있을 때 수십 명의 아마들이 흰옷을 입고 일제히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은 많은 아마추어 사진가를 불러 모으고 있다. 시론고 마쓰리는 1993년 「제2회 아름다운 일본의 마을경관 콘테스트」에서 문화부문 최고상인 농림수산대신상(農林水産大臣賞)을 받기도 하였다.<sup>39)</sup>



〈사진 1〉 2010년 7월 1일 미카즈키 신지에 참가한 아마 (필자 촬영)

비록 고무잠수복 위에 흰색의 이소기를 겹쳐 있기는 하지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카즈키 신지와 시론고 마쓰리에 아마들이 이소기를 입고 참여함으로써 이소기는 아마의 ‘전통적’인 잠수복이라는 것

39) 農林水産省, 「美しい日本のむら景観コンテスト受賞市町村の紹介」.

[http://www.maff.go.jp/j/nousin/noukei/binosato/b\\_utukusiimura/b\\_utukusiimura/kaisaikaibetu/ninai/nikai.html](http://www.maff.go.jp/j/nousin/noukei/binosato/b_utukusiimura/b_utukusiimura/kaisaikaibetu/ninai/nikai.html), 2012년 3월 25일 검색.

을 강하게 말해준다.

## 2) 이소기를 입은 아마의 이미지

아마가 있는 시마반도와 보소반도(房総半島) 지역의 관광은 흰색 이소기를 입은 ‘젊은 아마’의 포스터를 내걸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매력적인 아마의 이미지를 만들어왔다.<sup>40)</sup> 도바시의 바다박물관(海の博物館) 관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1960년대 이세시마 관광포스터에 등장한 젊고 예쁜 관광아마의 이미지가 일본인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한다.

2001년 보소반도의 시라하마초(白浜町) 관광협회 사무실에 걸려있던 포스터를 보자(〈사진 2〉 참조). 모델이 된 아마는 실제로 잠수작업을 하는 아마이지만, 속옷도 입지 않고 흰색의 이소기만을 걸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라하마에서는 2001년 조사 당시만 해도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고무잠수복의 착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아마들은 흰색의 이소기를 입고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2010년 9월에 만난 시라하마 아마의 이야기에 따르면, 고무잠수복 상의는 여전히 입는 것을 금지하지만 고무잠수복 하의를 입는 것은 허용하고



〈사진 2〉 시라하마초 관광협회의 포스터 (필자 촬영)

40) 武笠俊一, 「志摩における海女潜水漁と観光業」, 『三重大学医療技術短期大学部 紀要』第4巻, 1995, pp.230~231.

있다고 한다.

보소와 헤구라지마의 아마는 한때 성적 시선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1950년대 후반 보소의 온쥬쿠(御宿)는 반나체의 아마를 촬영하는 촬영대회로 유명한 곳인데,<sup>41)</sup> “젊은 아마 중에는 자신의 육체와 미모, 그리고 잠수안경과 광주리[잠수작업 중 채취한 해산물을 담는 통]를 자본으로 오로지 카메라 앞에 서서 모델료를 버는 소위 모델아마”가 있었다.<sup>42)</sup> 이탈리아의 민족지학자인 마라이니는 1954년에 헤구라지마를 방문하여 반나체 아마의 잠수작업을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책을 펴냈고, 이 책은 1964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나왔다.<sup>43)</sup> 이 책에 실린 헤구라지마 아마의 사진과 온쥬쿠 모델아마의 사진이 옛날의 아마 사진으로 인터넷에 많이 유포되고 있다.

〈사진 2〉의 관광포스터에 등장한 흰색의 이소기는 이전의 반나체 아마의 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포스터의 제작연도를 잘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델이 된 아마가 이제는 포스터가 널리 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에 아마의 마을인 구자키를 찾았던 관광객들은 실제 만나는 아마가 포스터의 아마보다 늙고, 뚱뚱하고, 매력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마르티네즈는 해석하였다.<sup>44)</sup> 아마가 검은색 고무잠수복을 입고 잠수작업을 하지만 산소공급장치 없이 무호흡으로 잠수하는 스모구리의 오래된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광객에게 중요했다는 것이다. 비록 검은색 고무잠수복을 입지만 스모구리의 전통을 간직한 아마에게서 관광객은 관광포스터에 등장한 흰색의 이소기를

41) 小暮修三, 『海女の表象』, 前掲書, p.130.

42) 額田年, 前掲書, p.58.

43) F. マライーニ, 『海女の島-触倉島-』, 未來社, 1964.

44) Martinez, Dolores P., “Tourism and the ama: the search for a real Japan,” in *Unwrapping Japan*, Eyal Ben-Ari, Brian Moeran, James Valentine, ed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p.110.

입은 아마의 성적 이미지를 보는 것이다.

### 3. 잠수작업과 관광

#### 1) 진주와 관광아마

2010년 1월 현재 미키모토 진주섬의 관광아마는 스무 살부터 쉰네 살까지의 여성으로 총 13명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정각과 오후 4시 반에 '아마의 실연(海女の実演)'이 있다는 안내화면이 입장권을 구입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 계절과 개관시간에 따라 하루 8, 9회의 아마의 실연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관람객의 숫자에 맞추어 2명에서 4명의 아마가 수심이 만조 때에는 6미터이고 간조 때에는 4미터 정도가 되는 바다에서 약 7분간 잠수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식회사 미키모토 진주섬의 정규직 사원인 관광아마가 실연 때 잠수를 해야 하는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관광아마가 잠수작업을 보여주는 동안 옥외 관람대에서는 일본어로 해설방송이 나온다. 외국인 전용 실내 관람실에서는 외국어 해설방송을 들을 수 있다. 잠수작업 중 관광아마가 채취하는 것은 바다 속에 미리 넣어둔 모조품인 경우가 많다. 겨울에는 진짜 해삼을 채취하기도 하는데, 방문객이 돌아간 후 다시 방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과거'에는 잠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마가 관광아마 사원으로 입사하였지만, 지금은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선배 아마로부터 잠수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1985년부터 관광아마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48세의 한 여성은 입사를 한 후 잠수를 배운 아마이다. 열흘 남짓 배웠는데, 바다에 닿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연습을 할 때 바닥을 보았느냐가 잠수의 숙련도를 측정하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사단법인 이세시마관광컨벤션기구가 2009년에 제작한 『이세시마』

라는 한글판 이세시마 관광가이드북과 미키모토 진주섬이 제작한 『아마』라는 팸플릿은 다음과 같이 아마와 진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일찍이 해녀[아마]는 진주양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해녀[아마]의 활약이 없었다면 양식진주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진주양식을 지탱해온 해녀[아마]의 활약을 기념하기 위해 진주섬에서는 해녀[아마]의 실연(実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sup>45)</sup>

고키치가 양식진주를 키우는 방법을 찾은 이후, 아마들은 아코야(あこや) 진주조개를 채취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키모토 고키치 덕분에, 아마들은 전복과 성게뿐만 아니라 진주조개를 채취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렸다.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1953년 아마들이 미키모토 고키치의 동상을 진주섬에 세웠다.<sup>46)</sup>

이세시마 관광가이드북은 진주양식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아마의 활약을 기념하기 위해 미키모토 진주섬에서 아마의 실연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키모토 진주섬의 안내책자는 아마들이 진주양식 덕분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미키모토의 동상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마가 진주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만을 관광객에게 심어준다.<sup>47)</sup> 흰옷을 입은 아마가 진주를 캐러 짙은 푸른 바다 속으로 잠수한다는 것은 관광객에게 놀랄만한 일로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는 진주채취 잠수부라는 이미지를 만든다.

미키모토 진주섬의 홍보담당자는 지금은 아마와 진주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이 지역에 아마가 많기 때문에 아마의 실

45) 이세시마관광컨벤션기구, 『이세시마』, 한글판, 2009, p.8.

46) Mikimoto Pearl Island, "Ama-women divers," a pamphlet.

47) Martinez, Dolores P., op. cit. p.148.



연은 관광상품의 하나로 “다이빙 쇼”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구미(歐米) 사람들이 이를 매우 흥미롭게 본다면, 1975년 5월 11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가 미키모토 진주섬을 방문한 사진을 보여주었다(〈사진 3〉 참조).



〈사진 3〉 1975년 5월 11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의 미키모토 진주섬 방문 (미키모토 진주섬 제공사진)

사진 속의 아마들은 흰색의 이소기를 입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가 방문했을 때, 정규직 사원인 관광아마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도바시 오사쓰(相差)에서 생업으로 하는 아마들도 불러왔다고 한다. 할머니, 어머니, 딸, 손녀로 구성된 가족이 이소기 복장을 하고 제일 앞에서 여왕 부부를 맞이하고 있다. 손녀는 잠수작업을 하기에 너무 어리고,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은퇴한 아마일 것이다. 미키모토 진주섬에서 4명의 아마가족을 내세운 것은 아마라는

직업이 대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관광아마는 흰색의 이소기 차림으로 잠수작업을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겨울에는 얇은 고무잠수복을 입고 그 위에 이소기를 입는다. 미키모토 진주섬이 제작한 『아마』라는 팸플릿은 왜 흰색의 이소기를 입을까라는 주제를 소개하면서 흰색은 물속에서 몸을 크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상어나 돌고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8)</sup> 제주해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어나 돌고래는 흰색을 싫어해서 흰색의 물수건을 쓰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sup>49)</sup> 또한 『아마』라는 팸플릿의 일본어판에는 이소기 차림의 아마는 1930년대 전후의 아마이고, 그 전에는 속치마인 고시마키(腰巻) 하나만 걸쳤으며, 현재는 고무잠수복을 입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판은 고시마키를 입었던 시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소기를 1930년대에 입었으며, 현재는 고무잠수복을 입는다고 설명한다.<sup>50)</sup>

이세시마지역 도바시 외국인관광객유치 촉진협의회가 2008년 3월에 한글판, 중국어판, 영어판, 불어판 네 종류로 제작한 이세시마 아마 문화를 전하는 가이드북인 『海女 Ama Professional Woman Diver』에서는 미키모토 진주섬에서 “전통적인” 잠수복을 입은 아마들이 잠수작업을 하는 것을 보라고 추천하고 있다.<sup>51)</sup> 사단법인 이세시마관광컨벤션기구가 2009년에 제작한 『이세시마』라는 한글판 이세시마 관광가이드북은 “흰 해녀복(이소기)을 입은 해녀(아마)를 볼 수 있는 것은 진주섬뿐”이라며 아마의 실연을 “도바의 풍물”로 소개하고 있다.<sup>52)</sup> 시

48) ミキモト真珠島, 『海女』, パンフレット資料.

49) 한림화, 『해녀복』, 김영돈 외,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p.168.

50) ミキモト真珠島, 前掲資料: Mikimoto Pearl Island, op. cit.

51) 이세시마지역도바시 외국인관광객유치촉진협의회, 『海女 Ama Professional Woman Diver』, 이세시마 해녀문화를 전하는 가이드북, 2008.

52) 이세시마관광컨벤션기구, 『이세시마』, p.8.: 伊勢志摩観光コンベンション機構, 『美し国 伊勢志摩』, 伊勢志摩観光ガイドブック, 2009, p.20.

마의 아마들은 생업으로 잠수를 할 때 고무잠수복을 입기 때문에, 미키모토 진주섬의 관광아마들은 이소기를 직접 만들어 입고 있다. 선배 아마로부터 잠수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소기를 만드는 법도 배우고 있다.

## 2) 스모구리 실연(素潜り実演)

구지시 고소테에서는 2010년부터 성계 채취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스모구리 실연(素潜り実演)’이라는 이름으로 아마가 이소기를 입고 성계를 채취하는 모습을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있다. 고소테는 고무잠수복을 입기 전에 아마가 잠수작업을 할 수 있는 북쪽 끝의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고소테의 아마를 ‘북쪽 끝의 아마(北限の海女)’라고 부르고 있다. ‘북쪽 끝의 아마’는 이 지역의 아마를 소재로 한 1959년의 라디오 드라마의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구지시 상공관광과나 구지시 어업협동조합 고소테지소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름이다.

2009년에 개최된 『제20회 북쪽 끝의 아마 페스티벌』에서 잠수작업을 보여준 ‘너무 귀여운(かわいすぎる)’ 19세의 신인아마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일본 전역에 방송되고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올라오자, 그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터넷 검색수 상위를 차지하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페스티벌은 보통 매년 한차례만 열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쪽 끝의 아마 페스티벌’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2007년에 개최된 제18회 아마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아마의 실연이 오전과 오후에 한차례씩 있었다.<sup>53)</sup>

53) 久慈市, 『第18回北限の海女フェスティバル』, <http://www.city.kuji.iwate.jp/files/4501/tirasi.pdf>, 2012년 3월 10일 검색; 久慈市, 『第20回北限の海女フェスティバル』, <http://www.city.kuji.iwate.jp/files/13981/21fesutirasi.pdf>, 2012년 3월 10일 검색.

‘너무 귀여운’ 신인아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고소테에서는 페스티벌에서만 관광객에게 보여주던 스모구리를 3개월의 성계 채취기간 동안 보여주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구지시 홈페이지 관광정보(2010년 6월 29일 최종수정)에 따르면,<sup>54)</sup> 평일에는 스모구리 실연이 예약제로 운영되며, 관광객은 아마 1명당 5,000엔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전 10시 반부터 실연이 정례화가 되어 관광객은 예약할 필요가 없이 견학요금으로 500엔을 내면 된다.

그러나 2010년 7월말 인기가 많았던 ‘너무 귀여운’ 신인아마를 포함한 3명의 신인아마가 고소테 아마회를 탈퇴하였다. 국내의 연예전문 뉴스통신사인 『뉴스엔』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2009년 고소테에서 25년 만에 새로 아마가 생겨날 당시 ‘너무 귀여운’ 신인아마가 일본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당시 오무카이씨는 일본 NHK의 한 프로그램에서 “전통을 지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 전통을 지키며 해녀의 길을 계속 가고 싶다”고 말해 일본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어놨다.<sup>55)</sup>

아마의 잠수작업을 보여주는 행사를 담당하던 아마센터의 건물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로 무너졌다. 2011년 7월 26일에 최종수정된 구지시의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아마센터의 건물이 전부 파괴되었지만, 손님들의 요망에 부응하여 예년에 개최되었던 『북쪽 끝의 아마 페스티벌』의 축소판 이벤트인 『고소테 아마장터(小袖 海

54) 久慈市, 『北限の海女 素潜り実演がスタート!』, 2010년 6월 29일 最終更新, <http://www.city.kuji.iwate.jp/cb/hpc/Article-87-19082.html>, 2010년 9월 12일 검색.

55) 뉴스엔, 『日 열도 흔든 미소녀 해녀 갑작스런 은퇴 왜?』, 2010년 8월 23일 등록,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8232137041001&code=100100](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8232137041001&code=100100), 2012년 3월 10일 검색.

女つこ市)」를 7월 31일 일요일에 개최한다고 알리고 있다.<sup>56)</sup> 알림사항에는 ‘고소테 아마장터’와 ‘북쪽 끝의 아마, 통상적인 영업’ 광고전단이 첨부되었다. 아마장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오전과 오후에 각각 1번씩 아마의 잠수작업을 보여주나, 예년에 했던 성게판매는 중지한다고 되어있다.

통상적인 영업 안내문을 보면, 2011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였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잠수작업의 실연이 있으며 견학요금은 500엔으로 평일에는 예약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마의 잠수작업을 보여주는 관광용 행사를 왜 계속하는 것일까. 구지시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관광지 안내문에서 ‘북쪽 끝의 아마’라는 항목을 살펴보자.

고소테에는 「가쓰기(かつぎ)」라고 불리는, 성게나 전복을 잠수에서 채집하는 아마의 어업법이 남겨져 있습니다.

고소테 해안의 아마센터 근처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이러한 기법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로 신축된 아마센터도 전부 파괴되었습니다만, 「지역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소규모이지만 영업을 재개합니다.

손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sup>57)</sup>

인용문에서 말하는 ‘지역의 전통’이란 무엇인가. 잠수작업의 실연 프

56) 久慈市, 「小袖 海女つこ市 開催!!」, 2011年 7月 26日 最終更新, <http://www.city.kuji.iwate.jp/cb/hpc/Article-87-25522.html>, 2012년 3월 10일 검색.

57) 久慈市, 「観光スポット-久慈市の観光」, <http://www2.city.kuji.iwate.jp/kankou/spot.html>, 2012년 3월 10일 검색.

로그래ムの 전통을 잇겠다는 것인가, 잠수어업의 전통을 잇겠다는 것인가. 구지시의 관광지 안내문이 잠수어업의 전통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잠수어업의 전통을 잇겠다는 의지에서 잠수작업의 실연 프로그램이라는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너무 귀여운’ 신인아마가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에서 ‘전통’을 지키겠다는 말도 잠수어업의 전통을 잇겠다는 말일 것이다. 유료로 관광객에게 공개하는 잠수작업의 실연 프로그램이 아마의 무호흡 잠수어업의 지속에 정말 기여하는 것일까. 실연 프로그램 때 아마의 복장을 보면, 실연 프로그램은 관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3월 10일에 검색한 위키피디아의 「小袖海岸(고소테 해안)」 항목에 따르면, 1956년 고소테 해안에 도로가 개설되어 외부인들이 이전보다 쉽게 해안에 오게 되고, 1959년 「북쪽 끝의 아마」라는 라디오 드라마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고소테의 아마들이 관광객의 주목을 받게 되자, 잠수작업을 할 때 상의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위키피디아의 자료이지만, 상반신은 나체로 잠수하던 헤구라지마에서 1960년경부터 관광객이 증가하여 아마들이 상의를 입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sup>58)</sup> 고소테에서도 이때쯤 상의를 입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의 이소기는 흰색 반바지와 무늬가 있는 감색(紺色) 상의(裈纏: はんてん)의 형태이다. 고소테의 아마가 입었던 상의는 시마와 시라하마의 아마가 입었던 흰색의 이소샤츠와 조금 다르다. 고소테에서는 반나체로 잠수를 할 때에도 해안가에서 해초를 채취할 때는 입었던 상의를 1960년 전후 무렵부터는 잠수할 때도 입었기 때문이다. 시마의 아마들도 현재 고무잠수복을 갈아입은 후 걸치는 이소나카네는 보통 무늬가 있는 감색 치마이다.

지금의 고소테 아마들은 고무잠수복을 입고 잠수작업을 한다.<sup>59)</sup> ‘북

58) 北国新聞社編集部 編, 前掲書, p.154. (小暮修三, 「海女の表象」, 前掲書, p.132에서 재인용)

쪽 끝의 아마'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여름에도 수온이 낮은 이곳에서는 일본 전역에 1961년부터 보급이 시작된 아마용 고무잠수복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착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소기를 입었던 시기는 매우 짧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잠수하여 성게를 채취하는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때 고소테의 아마들은 1960년 전후의 이소기 차림을 하고 있다. 평소에는 고무잠수복을 입고 잠수작업을 하지만,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잠수작업을 할 때에는 이소기를 입고 잠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소기가 '전통적'인 잠수복이라는 것을 관광객에게 심어준다. 나아가서 '전통적'인 잠수복을 입음으로써 스모구리가 아마의 전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귀여운' 신인 아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페스티벌에서만 보여주던 스모구리를 3개월의 성게 채취기간 동안 보여주게 되었다는 사실은 관광객들이 이소기를 입은 아마에게서 성적 이미지도 본다는 것을 말해준다.

#### 4. 맺음말

아마가 이소기라는 '전통적'인 잠수복을 입고 잠수하는 것을 관광객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관광객들은 이소기를 입은 아마가 잠수하는 모습을 왜 보는 것일까. 이소기는 스모구리의 전통과 아마의 성적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아마는 속옷 하의만 입고 잠수작업을 하던 것에서 상하의 한 벌인 이소기를 입고 잠수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거의 모든 아마가 고무잠수복을 입고 잠수작업을 하고 있다. 잠수복의 변화는 있었지만, 채취도구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스모구리라는 산소공급 장치 없이 무

---

59) 全国漁港漁場協会, 「漁村からのメッセージ-11. 「北限の海女」-」, <http://www.gyokou.or.jp/mesback.htm>, 2012년 3월 10일 검색.

호흡으로 잠수하는 기법은 그대로이다. 전복을 잡아 신에게 봉납하는 마쓰리에서 아마들이 비록 고무잠수복을 안에 끼입기는 하지만 곁에는 흰색의 이소기를 입고 잠수작업을 하는 것은 스모구리뿐만 아니라 복장의 측면에서도 아마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에게나 관광객에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소기는 아마의 전통, 즉 스모구리의 전통을 상징하고 있다.

미키모토 진주섬의 관광아마는 잠수작업을 일종의 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다이빙 쇼는 아마와 양식진주를 상징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관광안내 팸플릿에서는 미키모토 진주섬의 관광아마가 흰색의 이소기를 입고 잠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유일하게 미키모토 진주섬에서만 ‘전통적’인 흰색의 이소기를 입고 잠수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까지 선전하고 있다. 고소데에서는 ‘너무 귀여운’ 신인아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페스티벌에서만 관광객에게 보여주던 스모구리를 3개월의 성계 채취기간 동안 내내 보여준다. 평상시에는 고무잠수복을 입고 잠수작업을 하는 아마가 관광객에게 잠수작업을 보여줄 때에는 이소기를 입는다.

반나체의 아마가 이소기를 입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시마반도, 보소반도, 해구라지마, 고소데 등지에서는 관광의 영향이 매우 컸다. 아마들이 검은색 고무잠수복을 입고 있는 이제는 이소기가 아마의 ‘전통적’인 잠수복이 되었고, 시마와 고소데에서는 이러한 이소기를 내세워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1960년대 제작된 이세시마 관광포스터와 그 후 제작된 보소반도 관광포스터에 등장한 흰색 이소기 차림의 젊고 예쁜 아마의 이미지는 이소기를 성적 이미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관광아마의 다이빙쇼와 생업으로 잠수하는 아마의 성계채취를 보는 관광객들과 전복을 잡아 신에게 봉납하는 마쓰리에 몰려드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이소기를 통해 스모구리의 전통뿐만 아니라 아마의 성적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부자,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복식』,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 · 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탐라문화』 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 바다박물관(海の博物館) 편, 『눈으로 보는 도바 · 시마의 아마(海女)』, 한국어판 개정, 바다박물관, 2011.
- 이세시마관광컨벤션기구, 『이세시마』, 한글판, 2009.
- 이세시마지역도바시 외국인관광객유치촉진협의회, 『海女 Ama Professional Woman Diver』, 이세시마 해녀문화를 전하는 가이드북, 2008.
- 이형상, 『병와연보』, 청권사, 영인본, 1979.
- 이형상, 『탐라순력도』, 김남길 그림, 영인본, 제주시, 1994.
- 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한림화, 『해녀복』, 김영돈 외,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 伊勢志摩観光コンベンション機構, 『美し国 伊勢志摩』, 伊勢志摩観光ガイドブック, 2009.
- 岩田準一(이와타 준이치), 『志摩の海女』, 復刻, 鳥羽志摩文化研究会, 1971 (1939).
- 国崎町内会 · 熨斗あわび保存会, 『倭姫命を訪ねて 国崎へ』, パンフレット資料.
- 小暮修三(고구레 슈조), 『海女の表象-『ナショナル ジオグラフィック』に見るオリエンタリズムと観光海女の相互関係』, 『日本研究』 39, 人間文化研究機構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09.
- 田辺 悟(다나베 사토루), 『海女』, ものと人間の文化史 73, 法政大学出版局, 1993.
- 千葉県教育委員会, 『房総の漁撈習俗調査報告 房総の海女・海士』, 『日本の漁村・漁撈習俗調査報告書集成(第三巻)関東地方の漁村・漁撈習俗(1)』, 東洋書林, 2003.
- 塚本 明(쓰카모토 아키라), 『近代の志摩海女の出稼ぎについて』, 『三重大史学』, 三重大学人文学部, 第10号, 2010.

- 塚本 明(쓰카모토 아키라), 『都びとのあこがれ-歴史に見る志摩の「観光海女」-』, 『三重大史学』, 三重大学人文学部, 第12号, 2012.
- 東海農政局三重統計情報事務所伊勢出張所 編, 『鳥羽志摩地方の海女物語』, 三重県農林水産統計協会, 2003.
- 橋本好史(하시모토 요시후미), 『答志海女たちの朝鮮行きについて』, 未発表資料, 2009.
- 北国新聞社編集部編, 『能登 舩倉の海びと』, 北国出版社, 1986.
- 榊田一二(마스다 이치지), 『济州島海女』, 『地域社会の発展とまちづくり』, シード・プランニング, 1986.
- ミキモト真珠島, 『海女』, パンフレット資料.
- 宮本常一(미야모토 쓰네히치), 『海人ものがたり』, 中村由信写真集, 『海女』, マリン企画, 1978.
- 武笠俊一(무카사 순이치), 『志摩における海女潜水漁と観光業』, 『三重大学医療技術短期大学部 紀要』第4巻, 1995.
- 額田 年(메가타 미노루), 『海女-その生活とからだ』, 鏡浦書房, 1961.
- F. マライーニ, 『海女の島-舩倉島-』, 未来社, 1964.
- Gordon-Smith, Richard, *The Japan Diaries of Richard Gordon Smith*, Victoria Manthorpe ed., reissued editi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86.
- Martinez, Dolores P., *Identity and Ritual in a Japanese Diving Villag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 Martinez, Dolores P., "Tourism and the ama: the search for a real Japan," in *Unwrapping Japan*, Eyal Ben-Ari, Brian Moeran, James Valentine, ed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 Mikimoto Pearl Island, "Ama-women divers," a pamphlet.
- Plath, David W., "Lessons from the Ama," Study Guide: Fit Surroundings, Richmond: Media Production Group, Institute for Education on Japan, Earlham College, 1993.

뉴스엔, 「日 열도 혼든 미소녀 해녀 갑작스런 은퇴 왜?」, 2010년 8월 23일 등록,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8232137041001&code=100100](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8232137041001&code=100100), 2012년 3월 10일 검색.

久慈市, 「観光スポット-久慈市の観光」,  
<http://www2.city.kuji.iwate.jp/kankou/spot.html>, 2012년 3월 10일 검색.

久慈市, 「小袖 海女っこ市 開催!!」, 2011년 7월 26일 最終更新,  
<http://www.city.kuji.iwate.jp/cb/hpc/Article-87-25522.html>,  
 2012년 3월 10일 검색.

久慈市, 「第18回北限の海女フェスティバル」,  
<http://www.city.kuji.iwate.jp/files/4501/tirasi.pdf>, 2012년 3월 10일 검색.

久慈市, 「第20回北限の海女フェスティバル」,  
<http://www.city.kuji.iwate.jp/files/13981/21fesutirasi.pdf>,  
 2012년 3월 10일 검색.

久慈市, 「北限の海女 素潜り実演がスタート!」, 2010년 6월 29일 最終更新,  
<http://www.city.kuji.iwate.jp/cb/hpc/Article-87-19082.html>,  
 2010년 9월 12일 검색.

全国漁港漁場協会, 「漁村からのメッセージ-11. 「北限の海女」-」,  
<http://www.gyokou.or.jp/mesback.htm>, 2012년 3월 10일 검색.

日本ウエットスーツ工業会, 「ウエットスーツの変遷の年表」,  
<http://www.jwma.gr.jp/rekishi/rekishi.htm>, 2012년 3월 10일 검색.

農林水産省, 「美しい日本のむら景観コンテスト受賞市町村の紹介」,  
[http://www.maff.go.jp/j/nousin/noukei/binosato/b\\_utukusiimura/b\\_utukusiimura/kaisaikaihetu/ninai/nikai.html](http://www.maff.go.jp/j/nousin/noukei/binosato/b_utukusiimura/b_utukusiimura/kaisaikaihetu/ninai/nikai.html), 2012년 3월 25일 검색.

## ABSTRACT

## Tourism and the *ama*: Symbolism of ‘traditional’ diving suits

Yoo, Chul-In

Like Jeju *haenyeo*, *ama* in Japan are professional female divers who dive without breathing apparatus and gather marine products underwater. The *ama* dove wearing only loincloths before they wore the white cotton suits called *isogi*. The time frame in which they began to wear the *isogi* varied according to the period when tourists began to visit their villages. The *ama* in Shima Peninsula wore the *isogi* in the 1920s as they became the main tourist attraction.

As the *ama* began to wear wetsuits in the 1960s throughout Japan, the *isogi* became ‘traditional’ diving suits that nowadays they do not wear when gathering marine products underwater. When they dive to catch the abalone for the gods as part of the traditional sacred festivals, however, Shima *ama* wear the white *isogi* over the black wetsuits.

Wearing the white *isogi*, the diving women in Mikimoto Pearl Island of Shima Peninsula demonstrate free-diving without breathing apparatus to visitors. These demonstration divers in the tourism industry exhibit the image of a sexy, while-clad *ama* that appeared on the tour posters during the 1960s and after, as well as the imagery of the *ama* as pearl divers.

The *ama* at Gosod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main island of the Japanese Archipelago have been showing their free-diving skills without breathing apparatus, which are called *sumoguri*, to tourists during the season of sea-urchin (July to September) since 2010. Even though they usually dive wearing the wetsuits, they wear the *isogi*, which were last officially worn around 1960, when they show their *sumoguri* to tourists.

The *isogi* associated with the past or the tradition have attracted tourists in Shima and Gosode. Since the *isogi* show the sexual image of the *ama* as well as the tradition of free-diving, tourists eagerly consume both.

- 키워드: *ama*(海女), *isogi*(磯着), free-diving(素潜り), demonstration divers (観光海女), tourism(観光), tradition(伝統), sexual image(性的イメージ)

접수일(2012. 3. 31), 심사일(2012. 4. 19), 게재확정일(2012. 5. 9)

